

군산시, 평생학습도시로 '우뚝'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평생교육도시 군산시가 '제1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교육부 주최로 매년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155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군산시는 평생교육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으며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리매김했다. 시가 추진한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애환

심을 이끌어내 근대역사문화유산을 지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교육부장관상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지립형 평생학습도시'를 모토로 꾸준히 추진한 평생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사업 등 시민이 함께하는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참여형 평생교육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오는



11월 16일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에서 개최되는 IAEC 세계총회에서 평생교육의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는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수도과,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

군산시 수도사업소(소장 동태문)는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품질을 구축하고 인증 획득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로,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장·고객·암행평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비스품질 및 고객만족도가 탁월한 우수기업 및 기관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노후 수도관 정비 및 정기적인 수도물 수질검사 강화 등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실현해 상수도 이용 만족도 93.6%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에 도전하게 되었다.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맑은 물 공급과 물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11월중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맑은 물 공급과 물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며 다양한 고객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전북투어패스 특별할인가맹점 대상 교육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5일 숙박, 음식점, 체험업체 등 전북투어패스 특별할인 가맹점 154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대교육관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북투어패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객 대응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의 특별할인가맹점과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 운영자들이 참석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영섭 관광진흥과장은 "전라도 방

문의 해를 맞아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한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관광카드로 전북 14개 시·군 주요관광시설과 60여개 유료시설 무료이용, 전북 시내버스 무료이용, 도내 30여개 공영주차장 최대 2시간 무료이용, 1,000여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공연장, 각종 체험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푸드플랜 수립 초청 강연회 개최

군산시는 25일 농업인회관 강당에서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농업인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립도시 군산건설과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초청강연회'를 갖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강연회는 지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농산물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먹거리, 농업, 그리고 푸드플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의 강사로

나선 김경순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는 푸드플랜 수립의 의의와 필요성 및 푸드플랜의 선순환체계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초청강연이 군산시가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 정부의 목표와 발맞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플러스 페스티벌 개최

오늘까지 학생회관·캠퍼스 곳곳에서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 학사모 촬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학생회관 앞 새세대광장 및 캠퍼스 곳곳에서 '2018 원광플러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5년부터 열린 원광플러스 페스티벌은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들을 위한 학사모 촬영이 진행되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정 부 지원 사업단 및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의 집중화를 통해 취·창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지원단, 프라임사업단, LINC+사업단, 특성화사업단, 취업지원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학생과 등이 참여한다. 24일 개최식과 함께 예비 졸업

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사업단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한 김도중 총장은 "플러스 페스티벌은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차량 내비게이션처럼 현재 나의 위치를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창업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파악하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4학년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두가 노력하고, 플러스 페스티벌이 자기 인생의 확실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보건소, 미룡동서 찾아가는 건강캠페인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오는 27일 미룡동 근린공원(군산대 앞에서 미룡동 일원 주민들을 위한 건강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미룡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사업을 안내하고 ▲신체활동(체성분, 골밀도 측정), 영양, 금연 건강생활 ▲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혈압당 측정) ▲치매예방(치매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미룡동 일대 지역주민들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한걸음 다가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전국장애인체전 마라톤 구간 교통 통제

익산시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마라톤 10km 경기가 있는 29일 오전 해당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시간은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30분까지이며, 통제 구간은 (팔봉) 종합운동장-전자랜드사거리-새한주유소-익산유수호스텔까지 왕복 구간으로 1~2차선은 선수들의 주도로 전

면 통제하고 3차선만 차량 통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대대위 행사인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우정을 나누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넓은 양해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